

큰 죄와 작은 죄

현명한 노인에게 두 여인이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다.

키 큰 여인은 젊었을 때 남편을 버리고 개가 했던 것을 평생 뉘우치면서 자신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키 작은 여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랑하였다. 노인은 키 큰 여인에게

“당신은 밖에 나가서 큰 돌 하나를 주워 오시오.”

라며 일렀으며, 키 작은 여인에게는

“당신은 작은 돌 여러 개를 주워 오시오.”

이렇게 일렀다. 잠시 후 키 큰 여인은 큰 돌 하나를, 키 작은 여인은 작은 돌 여러 개를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왔다.

노인은 두 여인에게 다시 일렀다.

“두 분은 지금 주워 온 그 돌들을 반드시 먼저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고 오시오.”

그러자 키 큰 여인은 큰 돌 한 개를 쉽게 먼저 있었던 자리에 놓고 돌아 왔지만 키 작은 여인은 작은 돌들이 어느 것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하나도 제 자리에 놓지 못하고 돌아왔다.

“사람의 죄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큰 죄를 잊지 않고 항상 뉘우치고 있지만, 작은 죄는 마치 작은 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죄를 어디서 지었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교만하기 쉬운 것이요.”

노인의 재치 있는 가르침을 받고 두 여인은 크게 깨달았다.